LEARNING & KNOWLEDGE BIOMED
L&K BIOMED

PRESS RELEASE **배포일자: 18.05.03**

엘앤케이바이오, 호주 법인 설립 완료 "해외 시장 네트워크 구축 가속화"

▶ 전 세계 84개 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호주 현지 법인 설립 완료

▶ 대리점 판매와 직접판매 병행을 통한 수익성 개선 기대

[2018-05-03] 척추 임플란트 전문기업인 엘앤케이바이오(대표이사 강국진, 이승주)가 호주에 현지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한다.

엘앤케이바이오는 호주 멜버른에 현지법인 설립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회사측은 "호주 시장의 경우, 미국보다 시장규모는 작으나 제품가격대는 미국보다 프리미엄 시장으로 형성돼 있다"며 "작년 6월 호주대리점을 통해 첫 매출 발생을 시작으로 3개의 대리점과 약 76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판매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번 법인 설립을 통해 대리점 판매와 함께 직접 판매(Direct Sale)가 가능해지면서 향후 수익성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호주 의료기기 시장은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의존도 또한 높아 수출확대 기회가 충분한 시장으로 판단하고 있다.

코트라(KOTRA)의 '호주의료기기 시장동향'에 따르면 호주 의료기기 시장은 2016년 기준 65억 3,000만 호주달러 규모로 세계에서는 13위이며, 아시아·대양주 지역에서는 4번째인 시장이다.

호주의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은 세계 5위로 호주 정부의 의료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의료기기 수입 또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관련 의료기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엘앤케이바이오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해외시장 다변화 전략에 따라 다양한 국가에 인허가 및 등록절차를 진행되고 있다"며, "전 세계 84개국 네트워크 구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추가적인 해외시장 진출 또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엘앤케이바이오는 이번 호주법인 설립을 통해 미국, 캐나다,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의 국가에 법인설립이 완료됐으며, 북미, 동남아, 아세아 대양주로 이어지는 환태평양 벨트를 구축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회사는 "2010년 자사 제품에 대한 FDA 승인을 통해 성공적으로 미국시장에 진출했으며, 2012년 미국 현지법인 Aegis Spine을 인수하면서 시장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작년 캐나다와 말레이시아에 현지법인을 설립한데 이어 올해 인도와 호주 법인 설립을 완료하면서 해외 판매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